

“지리산댐 반대” 전국 확산

함양·산청·남원 불교연대 발족 환경단체들 ‘백지화 국민행동’ 추진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해 지리산지역 3개 시군의 불자들이 실행행사에 나서는 등 지리산댐 반대운동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지리산댐 건설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함양·산청·남원의 사암연합회와 주민·환경단체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은 20일 함양읍 위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리산 살리기 백지화 국민행동’을 추진했다.

불교연대는 이날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200여개의 사찰과 국보 7점 보물 41점 지방문화재 52점을 간직한 노천박물관이자 생태계의 보고’라며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통해 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불교연대는 앞으로 10만인 서명운동과 현수막 걸기, 환경·시민·종교단체와의 연대투쟁, 수자원공사와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항의방문 및 규탄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총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김기문)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여론을 수렴하고 21일에는 문정댐 건설예정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중단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회분과위는

이제 앞서 20일 오전에는 강석정 합천군수를 방문, 가야산을 관통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 및 노선변경을 요청했다.

21~22일 김천 직지사서 열린 교육인 주회 경복지역 분말사 주지 연수회에 참석한 214명의 주지사님들과 전북불교총연합회도 22일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24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에 참석한 단체들은 ‘지리산 댐 건설계획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리산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생태기행 지도자 워크숍도 7월 중순 지리산 일대에서 ‘지리산’을 주제로 모임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 농심마니 등 환경단체들은 7월4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가칭) 지리산댐 백지화 국민행동’을 발족시켜 국민적인 여론을 조성할 방침이다. 29일 오후 3시 조계종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출범하는 ‘(가칭) 지리산 살리기 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와 연대해 국민적인 댐 백지화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재경·이윤호 기자 (gkim@buddhopia.com)



◇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산청·남원불교연대는 20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연대

무등산 온천 개발 반대 집회

10년간 끌어온 무등산 온천개발 계획에 스님, 신부, 원불교 교무 등 성직자들이 반대운동에 나섰다. 광주지역 43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등산 온천개발반대지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소속회원 300여명은 17일 광주역 광장에서 ‘무등산 온천개발계획철회 범시민대회’를 열고 서명운동과 함께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대책회의는 이날 집회성명을 통해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고,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무등산 온천개발

계획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기로 뜻을 모으고 광주시당국과 개발업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장에는 중심사 문민정사 원효사 관음암 스님 30명을 비롯, 원불교 교무들, 천주교 신부들이 주축에서 이뤄진 밀집모자를 쓰고 자리를 함께 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공동의장 영조스님(중심사 주지)은 “온천개발이 강행될 경우 무등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1수원지 일대는 물론 중심사 등 산내 사람들의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복지정보센터

타종교보다 ‘운영우수’

지난 98년부터 구축되고 있는 종교계 복지정보센터 가운데 불교가 비교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사회복지연구원(소장 이해숙) 주최로 19일 동국대에서 열린 ‘종교계 사회복지 정보화 대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포럼’ 및 사회복지 사이버 교육장인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자료실 등은 다른 교단에서는 볼 수 없거나 훨씬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교나 기부금 등 각종 후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안내나 구인구직, 공동모금 등 정보 제공자와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과의 쌍방향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연꽃마을 부설의원 정상진료

전국 대부분의 병원과 의원이 20일 폐업에 들어간 가운데 수원, 청주, 안양, 대구 등 전국 14개 연꽃마을 부설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실시했다. 수원 광명의원 최귀동 원장은 “다른 동료 의사들로부터 폐업에 참여해 달라는 제의를 받기는 했지만 몸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의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폐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병원과 포항병원은 전문의 120여명이 폐업에 참여한 가운데 의사 겸직교수와 응급의료진 120여명이 24시간 진료에 나섰다. 그러나 폐업에 참여한 전문의들은 다른 병원과는 달리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명우 기자

‘불교포럼’으로 명칭 변경

새시대불교포럼은 21일 조계사 강연실에서 2000년 2월을 열고 단명명 ‘불교포럼’으로 변경하고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 공동대표에 박승원·김연규씨를 선출하고 불교발전위원장에 박경준, 사회정의위원장에 손학재, 평화통일위원장에 조성열, 시행위원장에 노규남, 감사에 유연씨를 각각 선임했다.

김재경 기자

관음종 호국영령 추모법회

6. 25 50주년을 맞아 대한불교 관음종은 20일 대전 한충원 대법당에서 호국영령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관음종종정 해운스님,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법회는 1부 추모법회와 2부 영산작법, 위령재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의 다짐’을 통해 “6. 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50년간 지내온 반목과 적대를 사랑과 이해로 승화, 합의 정신을 소중히 지켜 21세기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데 앞장 서자”고 다짐했다.

이경숙 기자

“불상·탱화등 보상대상 제외 재개발 토지수용 사찰손해”

하월곡동 성도사, 행정소송 하기로

재개발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며 사찰을 일반 주택과 같은 보상조건을 제시해 사찰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련법에 준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하월곡동 성도사 주지 해경스님에 따르면, 월곡구역 주택개발조합(재개발조합)이 사찰토지를 수용하며 불상 탱화 벽화 등 불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하지 않고 일반주택에 준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만 제시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성도사 사 토지 71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7천만원을 제시한 반면, 성도사는 최소 6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하월곡동 77번지 일대에 3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98년 3월부터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

해경스님은 “불상 불단 담장 탱화 벽화 단청 등은 현재의 건물구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전할 경우 모두 새로 조성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찰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성도사의 재결심청에 대해 지난 7월 “대책 등은 신청인이 수립하여야 할 사항”이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토지수용법 49조 1. 3항에는 ‘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게

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49조 3항에는 건물·입목(立木)·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관입권, 어업권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원가·수익성 등을 감안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이와 관련 22일 재개발조합과 성북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사찰에 대한 보상이 일반주택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찰을 출대한 처사”라며 적절한 보상을 촉구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간병인 전문과정 개설

대구 송향사 보건교육원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송향사 부설 불교보건교육원(원장 정환)이 불자 간병인(호스피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전문과정을 개설했다.

의료기관과 요양 및 복지시설, 가정간호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할 간병인양성을 양성하게 될 이 전문과정에서는 기초간호, 영양간호, 개인위생, 질병 예방 및 치료, 치매간호 등 간병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강습하며 교리강좌도 병행한다. 강의를 7월3일부터 4주간 일정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053)311-8922 한명우 기자

100일간의 대기설법

정토회 즉문즉설법회 회향

부처님 설법을 하실 때 제자의 근거에 따라 방편설을 하셨다. 한 행인이 부처님께 서를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묻는 사람이 인연 사람이면 ‘동쪽으로 가라’ 하고, 수원 사람이면 ‘북쪽으로 가라’ 하고, 춘천 사람이면 ‘서쪽으로 가라’ 하셨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보이신 대기설법의 방식으로 지난 100일간 진행된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의 ‘즉문즉설 법회’가 21일 막을 내렸다. 이날 즉문즉설 회향법회는 2백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수계식으로 진행됐다.

매주 4백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법당을 가득 메울 만큼 인기를 끈 정토회의 즉문즉설 법회는 스승과 제자가 눈높이를 맞추는 현대적 대기설법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또 법사가 일방적으로 법회 분위기를 좌우하는게 아니라 법사와 신도가 함께 법회를 운영하는 대중참여의 법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즉문즉설 법회에서는 거사들의 법명은 두 글자



◇ 100일간 실시된 정토회의 ‘즉문즉설’ 법회가 21일 회향식을 가졌다.

인데 여성들에게는 왜 세 글자의 법명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법회에서 다뤄진 질의 내용은 신도들끼리의 난상 토론으로 이어져, 정토회 홈페이지에 그동안의 난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법륜스님은 “현대인들은 생활과 육구가 가지각색이고, 거기에 따른 인생의 고민도 천차만별이다”며 “청중과의 교감을 시도했던 이번 즉문즉설 법회가 그들의 갈등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정토회는 오는 9월 제2회 즉문즉설 법회를 병행한다.

도필선 기자



목탁소리

도 필 선

(취재1부 기자)

용두사미 안됐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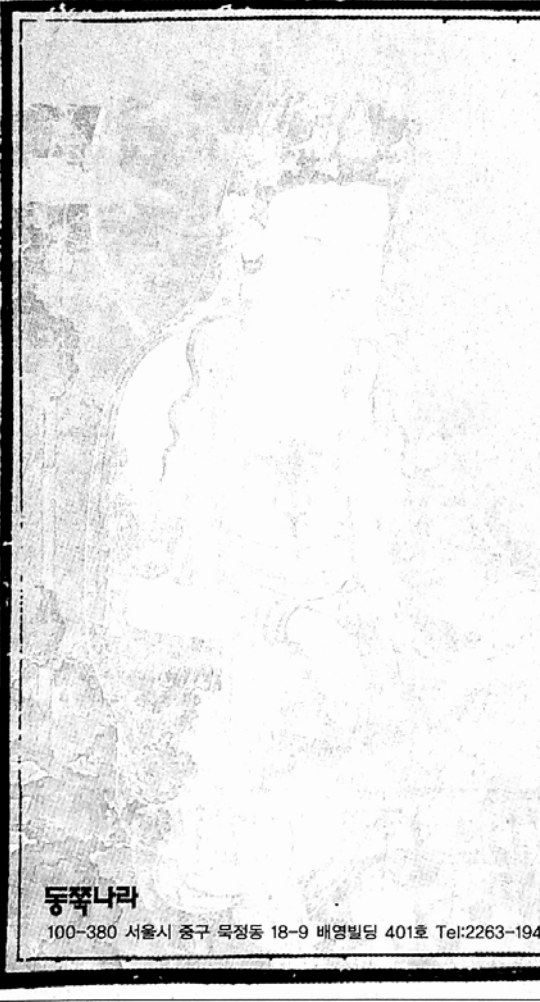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준비위는 22일 제3차 소위원회를 열고, 정관 및 사찰자랑을 망라한 대규모 조직으로 출범시킨 뒤 살을 조금씩 불려가는 방향으로 산화할 예정이다.

교계의 많은 단체들이 인위만 확보하고 창립했다가 제대로된 사

개발원이 ‘전국 조직망’의 허울뿐이

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일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성불자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성된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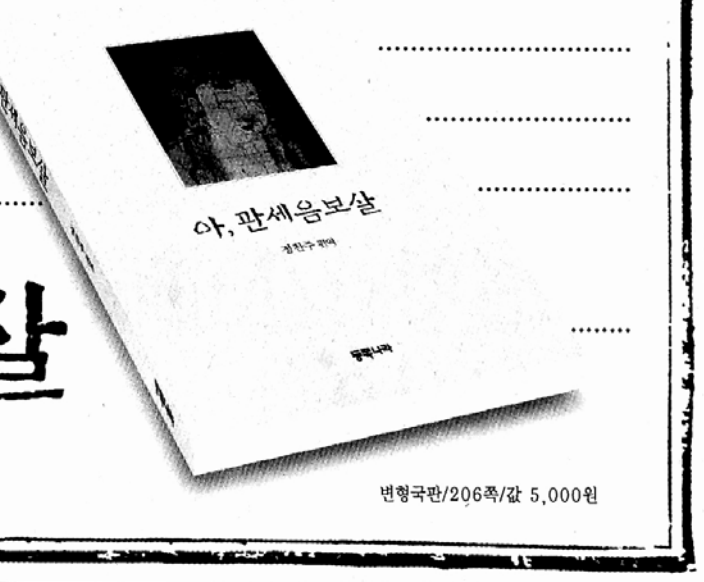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자 자신의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 바친 공주는
끝내 천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로 성불한다.

신비와 전설에 담겨 1천여년을 비전(秘傳)으로 내려온
눈물과 감동으로 읽는 관세음보살 성도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소설 정찬주 편역

아, 관세음보살



변형국판/206쪽/값 5,000원